

<Quarterly Report>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0 – Vol. 3]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목 차 ~~

I.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1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1
2. 지역별 시장 동향	2
3. 공종별 시장 동향	11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3
1. 거시지표	13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19
3. 글로벌 PPP 시장 동향	21
III. 해외건설 수주 진단	25
1. 수주추이 및 특징	25
2. 지역별 수주 동향	26
3. 공종별 수주 동향	28
IV. 정책제언	30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요약)

-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치를 10.5조 달러로 하향 조정
 -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조달러) : 11.1('20.4) → 10.5('20.6)
 - 세계건설시장성장률 전망(%) : -1.7('20.4) → -6.8('20.6)
- 세계건설시장규모 하향 전망 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IMF -4.9%, OECD -6.0%), 2차 확산시 추가 하향 우려
 - 산유국 및 자원부국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지출 축소 → 신규 발주 감소
 - 기자재/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공사 진도를 저하,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	CAGR
아시아	47,363	50,780	55,450	56,482	55,384	-1.9	4
유럽	23,102	23,941	26,138	26,041	23,751	-8.8	0.7
북미.태평양	17,316	18,312	18,769	18,494	16,500	-10.8	-1.2
중 동	5,625	5,641	5,222	5,198	4,373	-15.9	-6.1
중남미	5,484	5,920	5,921	5,557	4,250	-23.5	-6.2
아프리카	925	1,006	1,210	1,260	1,101	-12.6	4.5
합 계	99,815	105,598	112,710	113,032	105,358	-6.8	1.4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2016년 ~ 2020년)

2.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

- 2020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Global construction spending)는 코로나 19 대유행(Pandemic) 및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6.8% 감소한 10조 5,358억불로 전망
-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은 지난 6월말 시장규모를 이전 전망치인 11조 975억불보다 5,617억불 감소된 10조 5,358억불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성장을 전망치도 -1.7%에서 -6.8%로 하향 조정됨
-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IMF -4.9%, OECD -6.0%), 산유국 및 자원부국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지출 축소 및 이에 따른 신규 발주 감소, 기자재/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공사 공정을 저하,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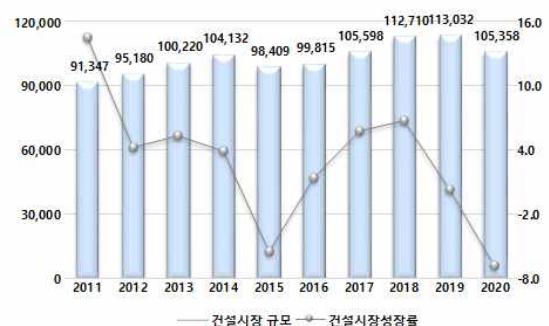
[세계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105,358	110,975	-5,617
성장률(%)	-6.8	-1.7	-5.1
CAGR*(%)	1.4	2.7	-1.3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추이]



3. 지역별 시장 동향

- (아시아) 세계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5조 5,384억불로 전망
- 최대 건설시장인 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내수 부양에 집중하면서 타 지역대비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해외투자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55,384	56,093	-709.0
성장률(%)	-1.9	1.4	-3.3
CAGR*(%)	4.0	4.3	-0.3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중국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2/4분기부터 V자형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데 IMF는 중국 경제가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한편, 인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4.5%의 역성장 예상)
-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올해 교통인프라에 1,272억불을 투자했으며 향후 서남지역을 중심으로 5년간 6,363억불을 투자할 계획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5의 경제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2.0%)가 예상되나, 베트남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정부 주도로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업시설(쇼핑몰, 호텔 등)은 관광 및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축소 및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가계 수입이 급감하면서 주택 대출 수요도 감소되어 주택 부문의 정체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이 호전되어 5.4일부터 베트남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착공됨(FPT Telecom 소유, 호치민 소재, 2021년 1분기 말 완공 목표). 한편 베트남 정부는 북남고속도로, 룡탄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및 항공 사업을 통한 지역 연결성 개선에 주력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인프라 PPP 사업 및 예산지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정부는 1조바트(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태국 GDP를 선도하는 관광(20%) 및 무역(20%)부

문이 큰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GDP 비중이 2.5%에 불과한 건설부문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움. 지난해 태국 PTTGC社가 추진한 바 있으나 경기전망이 좋지 못해 취소한 아로마틱 플랜트 건설이 하반기에 재추진될 여지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전망이 불투명해짐. 방콕 도시철도(오렌지 라인)는 추진이 지연되었고, 각종 IPP 프로젝트도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카르타-반둥(Bandung) 연결 철도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지만, 중국 춘절 이후 인력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 말레이시아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와 유가폭락 등의 영향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0.7% 기록, 정부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582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동부해안 철도사업(ECRL), MRT 2호선 등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를 추진할 계획
- 싱가포르 정부는 6월 2일 서킷브레이커를 해제하고, 3단계에 걸친 조치를 통해 경제 및 지역 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인 바, 건설 현장에 점진적인 인력투입 확대, 발주처의 업무재개 등이 예상됨.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외국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공사 현장은 금년 말경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추정됨
- 싱가포르의 경우 상반기에 발주되었으나, 평가가 지연된 사업들은 하반기에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입찰이 예정되었던 사업들은 2021년 상반기 중반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음. ex)상반기 평가지연 사업: Jurong region line 잔여 구간, 2021년으로 입찰연기 사업: Cross Island line 일부 구간)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중인데, 이로 인해 사업이 조정되거나 결과에 따라서는 추진이 중단될 수 있음. ex) Changi 공항 제5터미널 2년간 중단

- (중동) 세계건설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한 4,373억불 규모로 전망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4,373	5,224	-851
성장률(%)	-15.9	-2.8	-13.1
CAGR*(%)	-6.1	-1.4	-4.7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주요국은 내수와 무역 전반의 부진, 생산 차질, 재정 긴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은 주요 산유국의 재정 부담을 일으키고 있어 건설 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사우디는 정부 기관들에게 올해 지출을 30%까지 줄이도록 지시한 바, 이로 인한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우려됨. 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 투자에 13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토목, 건축 분야 발주가 기대됨. 특히 최근 서부해안 지역 국제공항 에어사이드 부문 건설계약 체결(7.13)에 이어 네옴 신도시, 홍해개발 등 대형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잇따를 전망으로 적극적인 입찰준비가 필요
- 아랍에미리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예산 중 인프라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카타르도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206억불 규모의 경제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North Field Expansion(NFE) 사업을 토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알제리, 이집트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석유화학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고 있음
- 이집트 RSNP(Red Sea National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가 발주한 4억불 규모의 정유공장 본 입찰 마감일이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2020/2021년에 276억불을 녹색 프로젝트(691건) 추진에 투자할 계획임이 발표됨
- (아프리카) 2020년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1,101억불로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1,101	1,074	27
성장률(%)	-12.6	-1.2	-11.4
CAGR*(%)	4.5	3.9	0.6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 등의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아프리카 각국의 재정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원유수출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DR콩고, 가봉 등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도 지난 6월 모잠비크, 가봉, DR콩고, 잠비아를 CCC 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과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 보건 분야 지출 증가로 부채가 점증하고 있어 신규 발주는 물론 기존 시공 중 공사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역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고성장 국가와 LNG 플랜트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각국의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0년 예산을 50억불 삭감하고, IMF에 긴급자금 70억불을 지원 신청하는 등 재정난으로 계획된 국책사업[경제회복 및 성장계획(ERGP, 2017~20)]과 LNG 플랜트 사업 지연 예상
- 모잠비크는 최근 피치로부터 투기(정크) 등급인 CCC를 받은 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된 데다가 금년 상반기에 예상된 300억불 규모의 로부마(Rovuma)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결정(FID)이 결국 2021년까지 연기됨에 따라 LNG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 케냐도 VISION 2030과 4대 국정과제(Big 4 Agenda) 추진을 위해 배정 예산을 전년(약 44억불) 대비 약 70% 감소한 12억불로 조정하면서 케냐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VISION 2030에 의거하여 LAPSSET(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프로젝트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Standard-Gauge Railway: SGR)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정난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앙골라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14억불 규모의 루안다 신 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5월말 재개하였지만 공사 기성지급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남아공 역시 최근 도시화 진전 등으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600억불을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남아공 경제악화 우려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난으로 활발히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임
- **(중남미)** 중남미 건설시장은 6개 지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23.5%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규모는 4,250억불로, 전체 시장의 4.0%를 점유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여전히 30%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4,250	4,887	-637
성장률(%)	-23.5	-9.8	-13.7
CAGR*(%)	-6.2	-2.8	-3.4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산업은행(BNDES)이 주축이 되어 인프라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
- 또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이후 브라질 시장 투자 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교통부문으로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부문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칠레의 경우 구리 채굴 광산업체 매출이 전 세계 광물자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였고, 광산개발관련 인프라사업 발주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인데, Enel Green Power Chile사는 총 1.8억불을 투자하여 144MW 규모의 Renaico II 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ES Gener사는 5,000만불 내외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칠레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칠레정부는 '녹색금융(Credito Verde)' 펀드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콜롬비아도 경기부양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사태로 중단됐던 약 202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재개될 예정임

- 특히 인프라청(ANI)은 금년에만 총 60억불의 인프라 PPP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Valle del Cauca州 통근 열차사업의 입찰이 금년 중 시행될 계획임. 총 16억불 규모인 동 사업은 72km 연장, 48개 역사 건설을 통해 2022년 상업운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콜롬비아 칼리(Cali)市와 인근도시인 Yumbá市, Palmira市 등을 관통할 계획임
- (북미·태평양) 세계에서 15.7%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지역 시장규모는 1조 6,500억불로 - 10.8%이 역성장이 예상됨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16,500	17,909	-1,409
성장률(%)	-10.8	-4.2	-6.6
CAGR*(%)	-1.2	0.6	-1.8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00여명(7. 3)을 상회하는 등 7월 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 실업률 추이는 3.5%(2월)→4.4%(3월)→14.7%(4월)→13.3%(5월)로 나타남
-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 으며, 미국 대선(11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 협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향후 10 년간 1조불을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6.16)함. 이후 경제는 등 도로·교량 등 전통적 SOC 및 5G 통신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점진적 회복이 전망됨
- 캐나다 정부는 570억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37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을 추진 중임

- (유럽) 2020년 유럽 건설시장은 8.8%의 역성장이 예상되며, 규모는 2조 3,751억불로 전체 시장의 22.5%를 차지

[건설시장 전망 조정]

구분	최근 전망 ('20. 6)	이전 전망 ('20. 4)	증감
규모(억불)	23,751	25,788	-2,037
성장률(%)	-8.8	-4.3	-4.5
CAGR*(%)	0.7	2.8	-2.1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16~'20년)

[건설시장 성장 추이]



- 5월부터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는 5월 중순부터 봉쇄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경제활동도 일부 재개
- EU는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유로(약 5,626억불) 규모의 경제부양 패키지에 합의하였고, 6월 4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코로나 부양책 재원을 1조 5,000억불로 확대하기로 결정
- 프랑스 정부는 3월 중순부터 건설현장 봉쇄 조치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건설시장은 14.1%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는 4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들의 90%가 실업자라고 발표. 한편,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 4월, 542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한 바 있음
-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 5월 GDP의 13% 해당하는 70억불 규모의 장기 투자계획 발표했으며, 이중 공항, 경제자유구역(FEZ), 항만 및 내륙 수로, 철도 인프라 개발을 위해 21억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건설현장 활동을 재개시키고, 공기업인 Rosatom사도 이집트·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힘

4. 공종별 시장 동향

- 플랜트, 토목, 건축 등 3개 공종 모두에서 시장규모, 성장률, 연평균성장률이 이전 전망치보다 감소함

- 공종별 건설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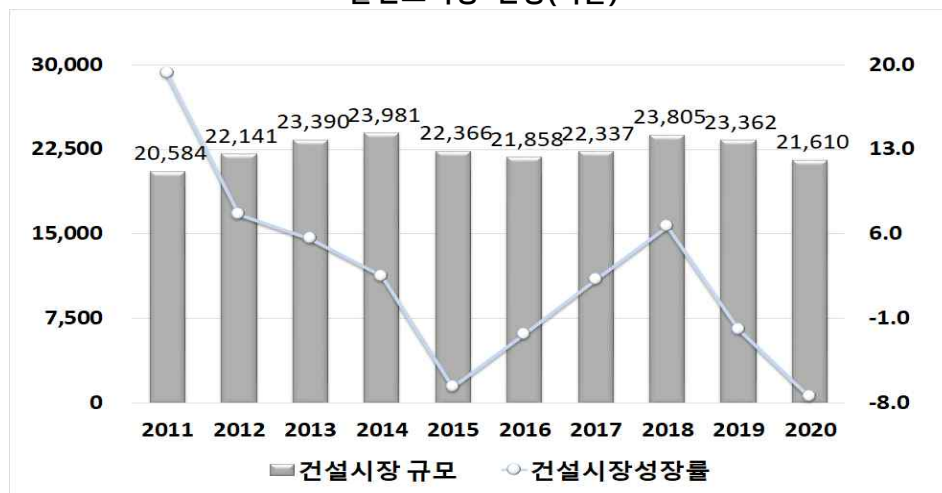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	CAGR
건 축	57,362	60,663	64,461	64,585	59,953	-7.2	1.1
토 목	20,594	22,598	24,444	25,085	23,795	-5.1	3.7
플랜트	21,858	22,337	23,805	23,362	21,610	-7.5	-0.3
합 계	99,815	105,598	112,710	113,032	105,358	-6.8	1.4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CAGR :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기간은 5년(2016년 ~ 2020년)

- **(플랜트)** 전체 시장의 20.5%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시장의 축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지난 해 우리 해외건설수주의 48.7%를 차지한 플랜트 시장은 이전 성장률 전망치 - 3.7%에서 - 7.4%로 조정됨
 - 지난 해 108.7억불(점유율 48.7%), 올해 상반기 기준 94.6억불(58.6%)을 수주하며 전체 수주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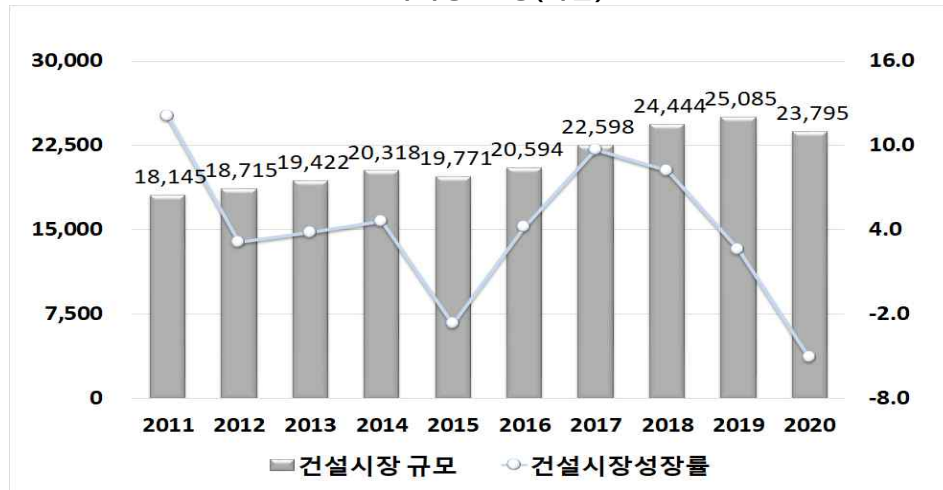
- 플랜트시장 전망(억불) -



*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토목)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토목 시장 성장률은 - 5.1%로 3개 공종 중 역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2019년 우리기업의 토목 수주비중은 20.3%(45.4억불)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비중은 소폭 감소한 15.9%(25.6억불)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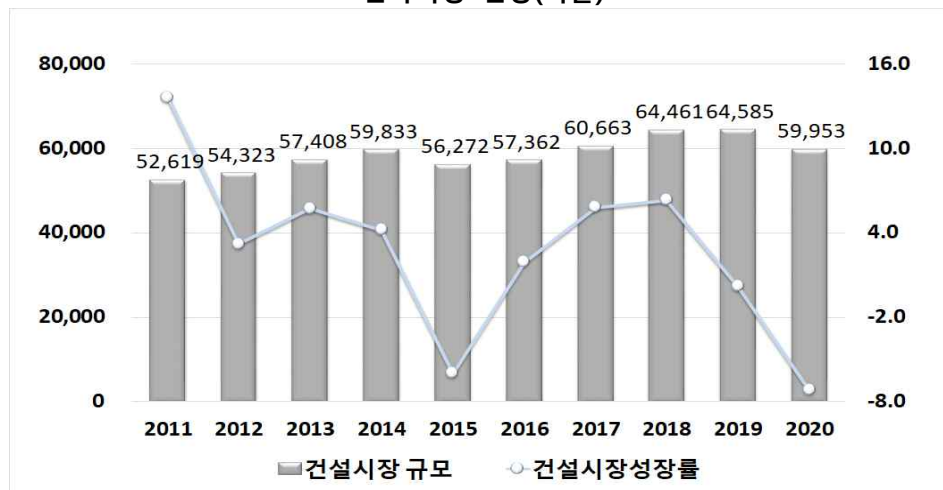
- 토목시장 전망(억불) -



*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건축) 주택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 시장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 - 2.1%에서 - 7.2%로 조정됨
- 2019년 건축공종 수주비중은 22.0%(49.1억불)로 올해 상반기까지도 20.4%(33.0억불)로 양호한 실적 기록

- 건축시장 전망(억불) -



* 출처 : IHS Markit(2020. 6),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 거시지표

- (GDP 성장률) 2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Pandemic)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정책(Lock down)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추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기에 벗어난 중국만 이례적으로 +3.2%의 분기 성장을 기록

-지역/국가별 20년 GDP 성장률 전망치 -

지역/국가	기관	전망치	주요내용
글로벌	IMF	-4.9%	4월 대비 -1.9% 하향 조정
	OECD	-5.98% -7.60%	코로나19의 타격이 1번 오는 경우와 2번 오는 경우
	S&P	-3.8%	기존 -2.4%에서 -1.4% 하향 조정
	IHS 마킷	-5.5%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2차 경기 하강할 것
	FITCH	-4.6%	기존 전망치(-1.9%) 대비 -2.7% 하향 조정
선진국	IMF	-8.0%	4월 대비 -1.9% 하향 조정
신흥국	IMF	-3.0%	4월 대비 -2.0% 하향 조정
한국	한국은행	-0.2%	코로나19 장기화시 -1.8% 1Q -1.3% 2Q -3.3%를 기록.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집중된 2Q에도 부진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추경 없이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0.2%) 및 정부의 목표(+0.1%)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 높음
	IMF	-2.1%	4월 대비 -0.9% 하향 조정
	OECD	-1.23% -2.47%	코로나19의 타격이 1번 오는 경우와 2번 오는 경우
	한국경제연구원	-2.3%	설비투자 감소(-18.7%), 민간소비 감소(-3.7%)로 인해 상반기 -1.7%, 하반기 -2.9% 전망
미국	연준		2Q 경제성장률 -20~30% 전망
	IMF	-8.0%	4월 대비 -2.1% 하향 조정
	OECD	-7.30%	코로나19의 타격이 1번 오는 경우와 2번 오는 경우

		-8.54%	
중국	국가통계국		1Q 성장률은 -6.8%이었으나, 2Q에는 +3.2% 달성
	IMF	1.0%	4월 대비 -0.2% 하향 조정
	OECD	-2.63% -3.67%	코로나19의 타격이 1번 오는 경우와 2번 오는 경우
일본	IMF	-5.8%	4월 대비 -0.6% 하향 조정
	OECD	-6.05% -7.32%	코로나19의 타격이 1번 오는 경우와 2번 오는 경우
	내각부		1Q GDP성장률이 -3.4%로 19.4Q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침체(recession) 국면 진입
	니혼 게이자이 신문		2Q GDP 성장률에 대한 23명의 민간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는 -21.2%로 GFC 영향을 받은 09.1Q -17.8%를 하회할 전망 되는 경우 -5% 까지 하락 가능
EU	IMF	-10.2%	4월 대비 -2.7% 하향 조정
	OECD	-9.07% -11.46%	코로나19의 타격이 1번 오는 경우와 2번 오는 경우
	European Commission	-8.7%	21년 +6.1% 전망

* 출처 : 6월 이후 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내용 취합/정리

- (IMF)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컸고 회복 또한 더딜 것으로 전망하며 '20년과 '21년의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4.9%, +5.4%로 각각 하향 조정. 중국(1.0%)을 제외한 전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 러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음. 선진국은 EU(-10.2%), 영국(-10.2%), 미국(-8.0%) 모두 큰 폭으로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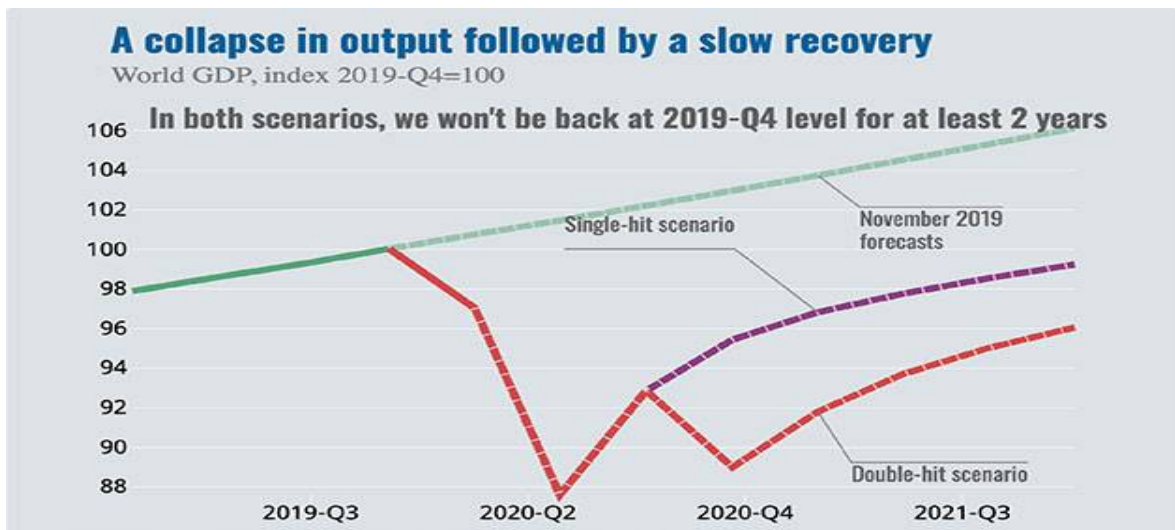
-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추이

기준년도	'18	'19(E)	'20(F)	'21(F)
세계경제 성장률	3.3%	2.9%	-4.9%	5.4%
선진국경제 성장률	2.2%	1.7%	-8.0%	4.8%
신흥국경제 성장률	4.5%	3.7%	-3.0%	5.9%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Update ('20.6)

- (OECD) 코로나19의 여파가 1회로 그칠 때와 재확산(2nd wave)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향후 2년 동안은 코로나 이전(19.4Q)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OECD의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



* 출처 :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 (美 Fed) 경제활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미국경제가 이중침체(Double Dip)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 (美 의회 예산국) 6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11.1%로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예산국은 코로나19의 상황과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의 효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미국 경제전망이 지난 1월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이 지난 5월 전망치인 -11%에 비해 더 부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

* 美 실업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월에 50년래 최저치인 3.5%를 기록

- (EU Commission)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로 인해 생산량이 위축되며 갑작스런 경기침체에 돌입. '20년 -8.5% 역성장을 시현한 이후 '21년 6%의 성장을 보이며 회복할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과 신흥시장에서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럽경제도 그 여파로 회복이 더딜 수도 있음을 시사

한국 2Q GDP 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1Q(-1.3%)에 이어 2Q(-3.3%)에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역성장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수출실적 악화(-16.6%)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민간소비 +1.4%)가 집중된 2Q에도 부진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추경 없이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5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0.2% 및 정부의 목표(+0.1%)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 높음

코로나19가 완화되어 한국인에 대한 입국통제*의 해제(혹은 완화)되는 경우 수출이 회복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3Q 중에는 요원한 일일 것

* 7.23 현재,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총 106개 국가에서 입국금지

코로나19 영향 전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미주와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사망률은 5%대에서 3%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률이 중요한데, 이는 경제봉쇄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각국 정부는 향후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경제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봉쇄가 없으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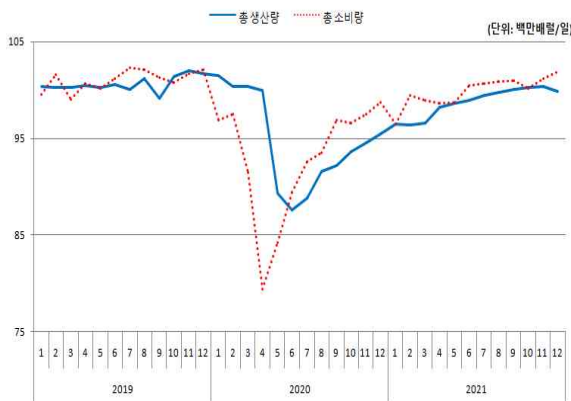
해외건설 인사이트 vol.2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IMF 등 주요기관들은 경제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이는 Lockdown의 영향이 2Q에 가장 컸기 때문

3Q(QoQ)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Base Effect)로 인해 +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단, 전년 동기비(YoY)는 여전히 역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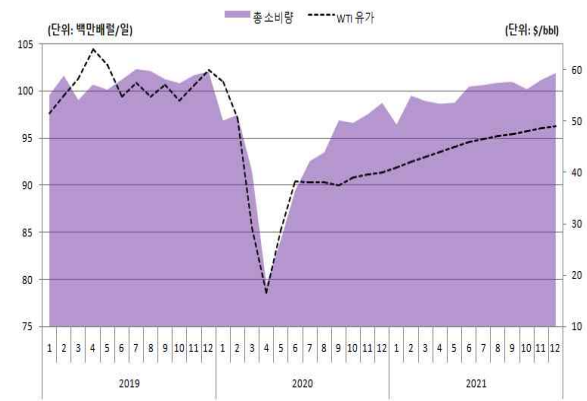
다만, 의료시스템이 취약하면서 재정이 좋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확산만으로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코스타리카와 같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년 유가는 소비위축·저성장 등 하방 요인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감산합의 및 소비반등 등 일부 상승요인이 감안되어 지난 4월 예상치보다 약 7불 상승한 37불 안팎 예상(WIT기준/배럴당)
* 美IEA('20.7), '20년 WTI 37.55불/배럴(현물평균) 전망

- 세계 석유 공급 및 소비 전망 -



- 세계 석유 소비 및 유가(WTI) 추이 -



- (미국 기준 금리)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1.00~1.25%에서 0~0.25%로 1.00%포인트 인하한 이후 현 기준 금리를 유지 중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가 지난 2차례(4.29, 6.10) 연방공개시장위원회(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를 통해 금리를 2022년까지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힘

- 미국 기준 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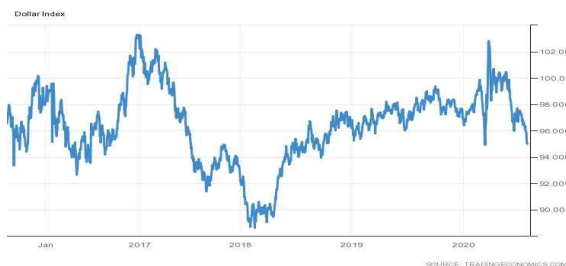


SOURCE: TRADINGECONOMICS.COM | FEDERAL RESE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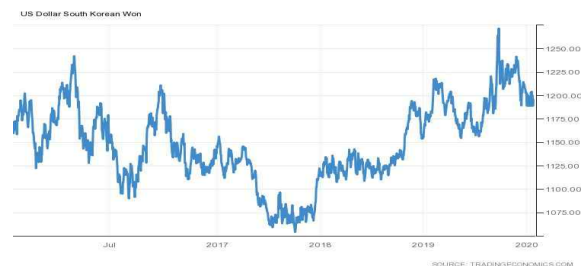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 시장 안정화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적으로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미국은 물론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영향이 건설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해당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환율)** 달러 인덱스(DXY, Dollar Index)는 3월 중순 100 이상을 상회하다 5월 중순부터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며 95 수준을 유지하는 등 달러화 약세로 전환
 - 원/달러 환율은 2분기 1,200~1,240원선이 지속되다가 달러 약세 및 전반적인 금융 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1,190~1,210원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 수주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프로젝트 생애 주기(Life cycle)을 고려할 때, 계약 통화, 기자재 구입 등 비용지출시 통화의 종류 등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최근 EU 회복기금 합의 타결 및 이로 인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기 회복기대로 그간 유럽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의 한 요소였던 유로화 약세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소폭 개선될 가능성 있음

- 주요 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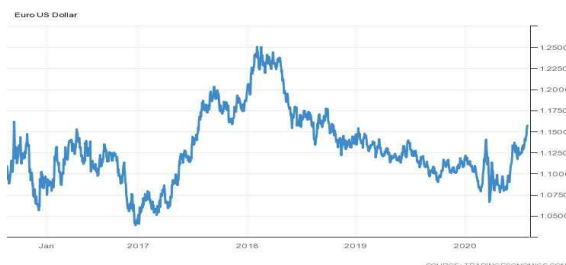
- 달러 인덱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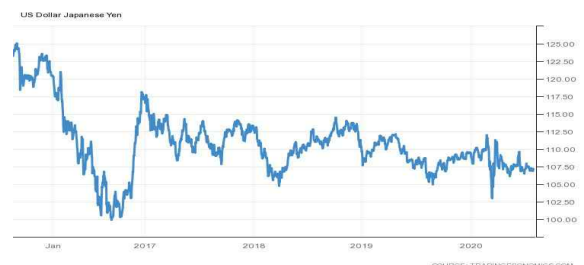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



- 달러유로 환율 -



- 엔달러 환율 -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 2020년 상반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규모는 약 1,386억불로 전년 동기 1,410억불 대비 1.1% 감소 (출처: PFI, MID-YEAR Review)
- Loan 시장 규모는 1,236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4% 증가했으나, 건수 기준으로는 317건으로 79건 감소
- SMFG, MUFG, Mizuho 등 일본 은행들이 1, 2, 5위를 차지하며 전체 Loan 시장의 19.6%(전년동기비 +5%p)를 점유했으며, 프랑스의 3대 은행이 14.5%(전년동기비 +4%p)를 차지

- 20년 상반기 Loan League Tab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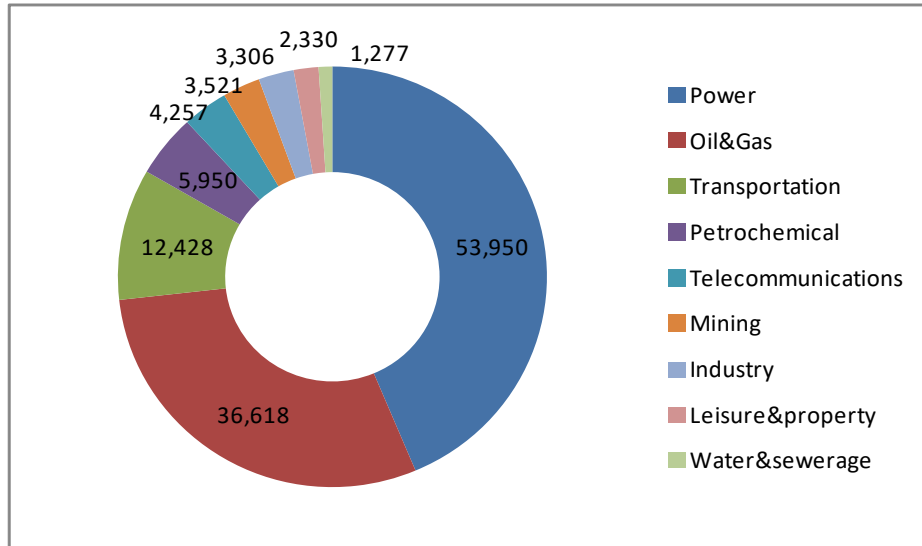
순위	회사	금액	비중	건수
1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10,048	8.1%	59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8,463	6.9%	55
3	Societe Generale	6,770	5.5%	43
4	BNP Paribas	5,772	4.7%	39
5	Mizuho Financial Group	5,649	4.6%	30

* 출처 : PFI, MID-YEAR Review

- (미주) '20년 상반기 규모는 44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미주 지역의 66%를 차지한 미국 프로젝트에 사용된 Loan 규모는 288억불로 전체 Loan 시장에서도 23.3%를 점유하면서 1위 기록
- (EMEA) '20년 상반기 규모는 46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전체 프로젝트 Loan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89억불의 Loan을 발생시키며 전체 국가 중 3위를 기록한 UAE가 ADNOC Pipeline deal과 F3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EMEA 시장의 20%를 차지
- (아태) '20년 상반기 규모는 35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 153억불의 Loan을 발생시키며 전체 글로벌 Loan 시장에서 점유율 12.4%로 2위를 차지한 호주가 아태지역 Loan 중 43%를 차지
- 공종별로는 발전분야가 540억불(44%), Oil&Gas가 366억불(30%)로 두 개의 공종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10%)을 제외한 석유

화학(5%), 통신(3%) 등 다른 공종들은 비중이 높지 않음

- 공종별 Project Loan 규모 -



* 출처 : PFI, MID-YEAR Review

- Bond 시장 규모는 150억불로 '19년 상반기(210억불)에 비해 27% 감소했으며, 건수도 36건으로 7건 감소
- Loan 발행규모 2위인 MUFG가 Bond 시장에서 9.1%의 비중을 점유하면서 1위를 차지했으며, Loan 부문 6위인 Credit Agricole은 8.4%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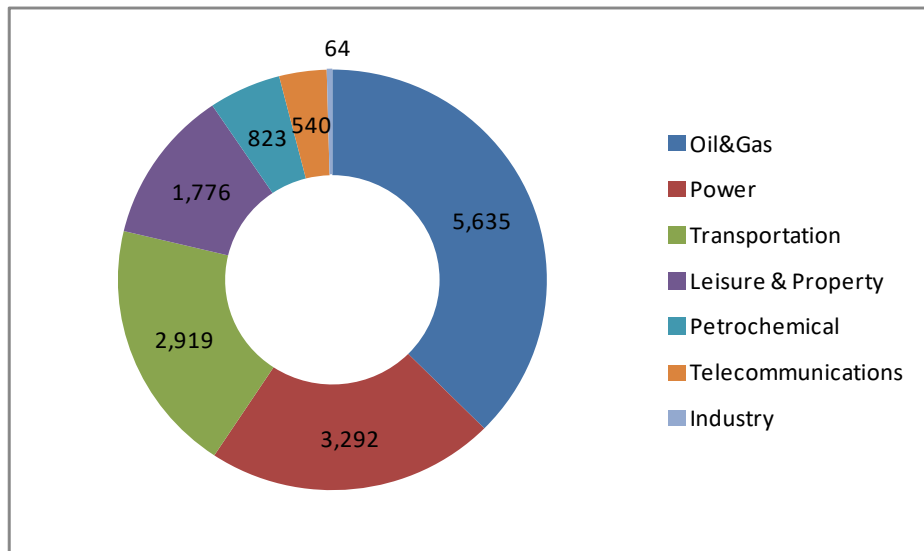
- 20년 상반기 Bond League Table -

순위	회사	금액	비중	건수
1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367	9.1%	10
2	Credit Agricole	1,259	8.4%	9
3	JP Morgan	1,206	8.0%	9
4	RBC Capital Markets	725	4.8%	4
5	BofA Securities	529	3.5%	4

* 출처 : PFI, MID-YEAR Review

- 공종별로는 Oil&Gas 분야가 56억불, Power가 33억불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교통, 레저&프로퍼티G, 석유화학, 통신 순이었음

- 공종별 Project Bond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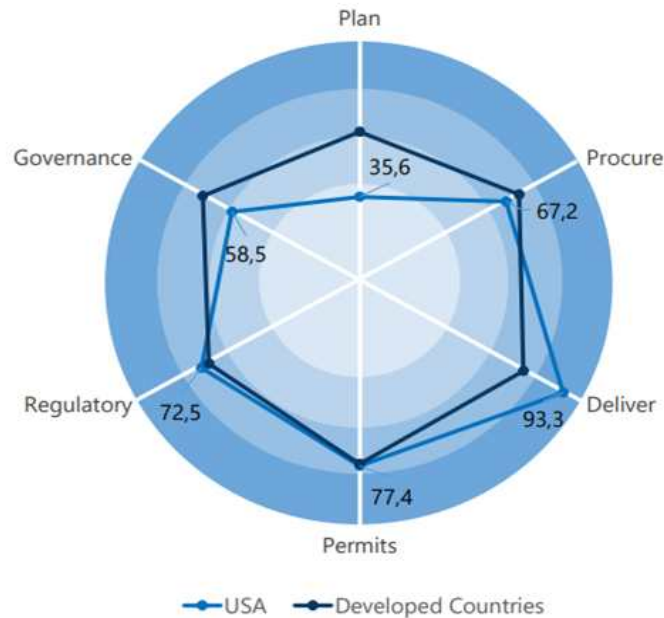


* 출처 : PFI, MID-YEAR Review

3. 미국 PPP 시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PP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자 미국 정부는 법률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
 - * the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2015), th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me (2016), the Project Support Fund (2017) 등
- 2017년 197억불, 2018년 195억불 수준에 불과하던 미국의 PPP 시장 규모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9년에는 883억불까지 증가
- 미국은 다른 선진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 인수·인계(delivery) 단계가 현저히 발달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제도, 인허가 등에서도 선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지배구조 및 조달은 선진국 평균 수준에 못 미치며, 계획 단계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인프라 콤파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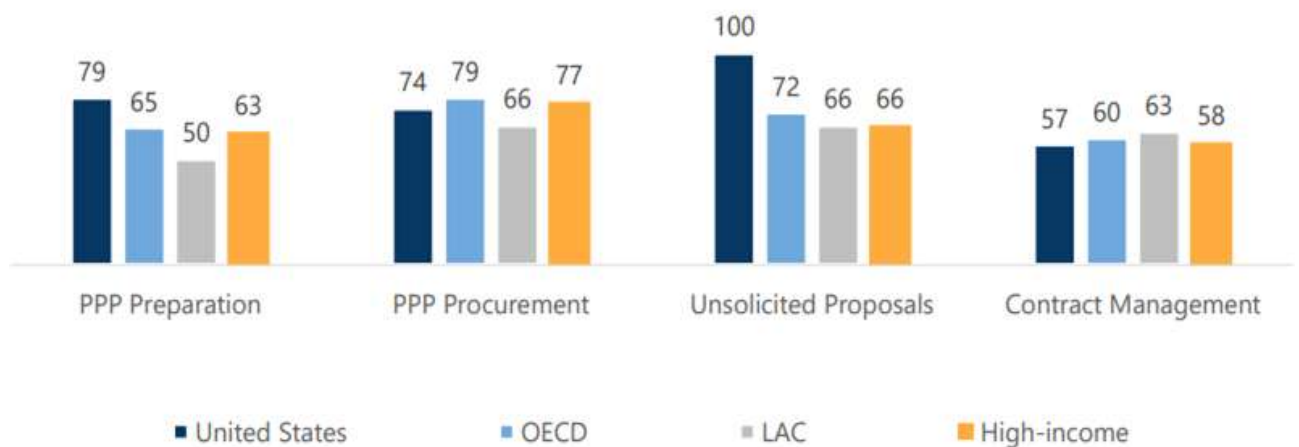


* 출처 : Infra PPP, United States of America PPP Market

- OECD 국가, 고소득국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은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s)과 준비단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조달 및 계약관리 단계는 낮은 점수를 받음

* 0~100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PPP 모범사례(good practice)와 밀접하게 연계된 PPP 프레임워크를 가진 것으로 간주

- PPP Regulatory Framework score -



* 출처 : Infra PPP, United States of America PPP Market

- '19년 말 기준 미국에서 준비/진행 중인 PPP 프로젝트는 총 475건으로 규모는 약 1,665억불 수준

주) InfraPPP World Database 기준

- 교통 프로젝트가 209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건강 부문이 183건으로 이들 부문이 전체의 83% 점유. 이 밖에는 수자원 39건, 에너지와 통신이 각각 22건씩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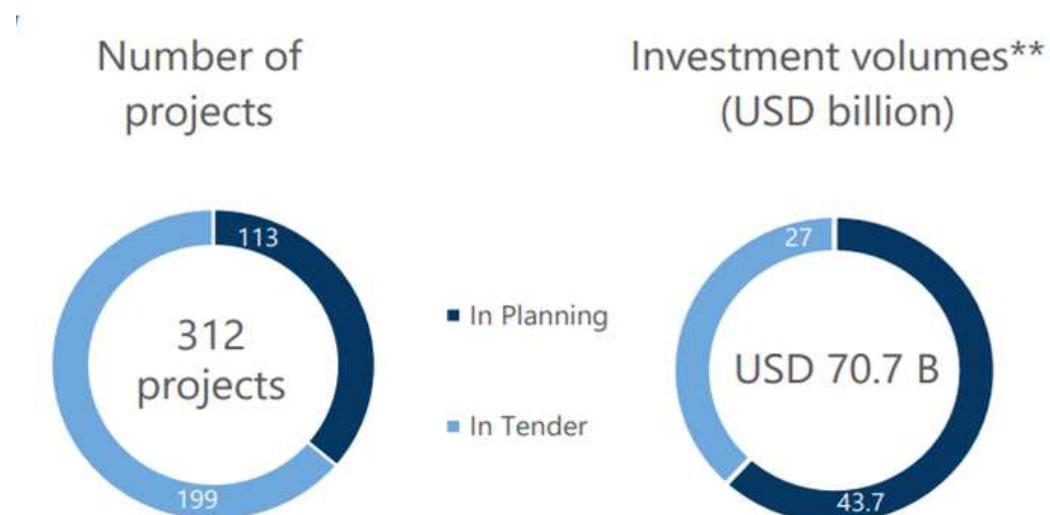
- 섹터별 미국의 PPP 프로젝트 -



* 출처 : Infra PPP, United States of America PPP Market

- 475건의 PPP 프로젝트 가운데 계획/입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312건이며 규모는 약 707억불 수준
- 계획단계 : 113건, 437억불 / 입찰단계 : 199건, 270억불

- 미국의 PPP Pipeline -



* 출처 : Infra PPP, United States of America PPP Market

- 시공/운영 단계에 있는 PPP 프로젝트는 163건(958억불)
 - 시공단계 : 133건, 796억불 / 운영단계 : 30건, 162억불

- 진행 중인 PPP 프로젝트 -



* 출처 : Infra PPP, United States of America PPP Market

III.

해외 수주실적 진단

1. 수주추이 및 특징

- (추이) 202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회복 추세
 - * 총 수주액/총 건수
- 2020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61.4억불로 전년 동기 약 119.3억불 대비 약 35%p 증가
- 상반기 수주 프로젝트 단위 규모도 2019년 약 0.4억불에서 2020년에 약 0.6억불로 증가해 대형화 추세
- (특징)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 수주액은 약 154억불로 도급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회복세
 - 2020년 상반기 단위 프로젝트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형 공사 수주 패턴으로 전환되었으며 도급형 수주비중 증가*
 - * 도급형 수주비중 추이: 2019.2Q 90%→2020.2Q 98.9%
 -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비중은 대폭 감소(2019.2Q 10%→2020.2Q 1.1%)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세계 경기흐름 속에 투자 프로젝트 진출 확대 필요

- 지난 5년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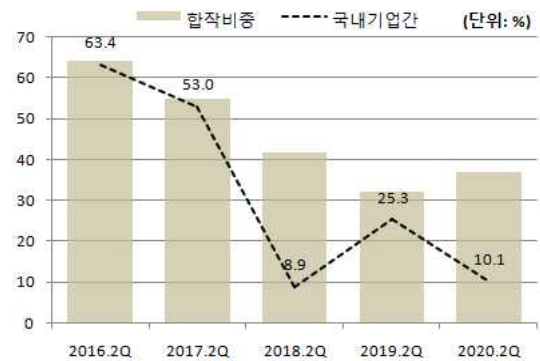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상반기 발주형태별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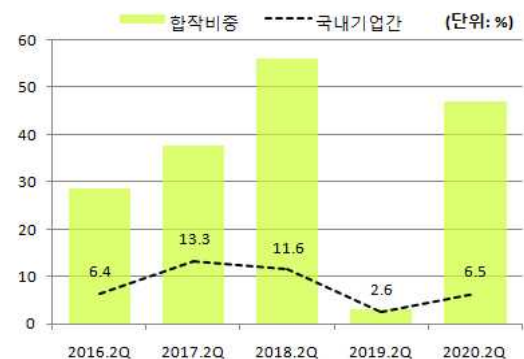


2. 지역별 수주 동향

- (중동) 2020년 상반기 중동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을 기점으로 반등 추세로 국내외 기업간 협력진출도 다시 증가 추세
 - 상반기 수주액은 77.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1.1억불→4.3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2Q 32%에서 2020.2Q 약 37%로 증가추세인 반면, 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은 25.3%→10.1%로 급감
 - 지난 5년간 상반기 중동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상반기 중동지역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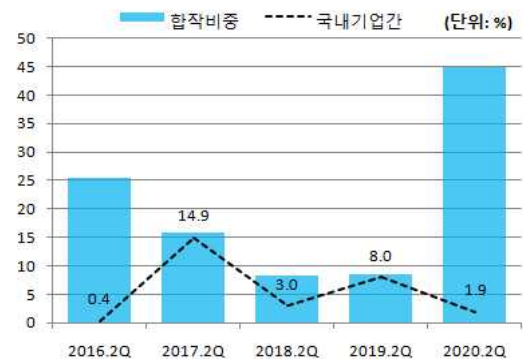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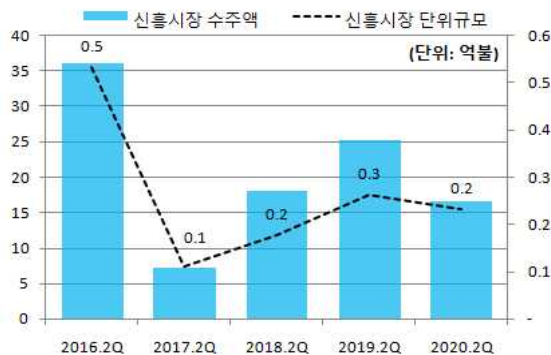
- (아시아) 2020년 상반기 아시아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회복 추세이며 국내외 기업간 합작비중도 크게 증가
 - 상반기 수주액은 67.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6.5%p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중형화(0.3억불→0.4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2Q 3.1%에서 2020.2Q 약 47%로 급증(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도 2.6%→6.5%로 증가)
 - 지난 5년간 상반기 아시아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상반기 아시아지역 합작비중 추이 -



- **(신흥시장)** 2020년 상반기 신흥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외국기업 합작비중은 급증

* 북미·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 상반기 수주액은 16.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p 감소했으며 특히 유럽 지역은 약 75%p 급감
- * 전년 동기 대비 북미·태평양 17.3%, 아프리카 69.5%, 중남미 42.9% 증가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2Q 8.6%에서 2020.2Q 44.8%로 급증(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8.0%→1.9%로 크게 감소)
- 지난 5년간 상반기 신흥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상반기 신흥지역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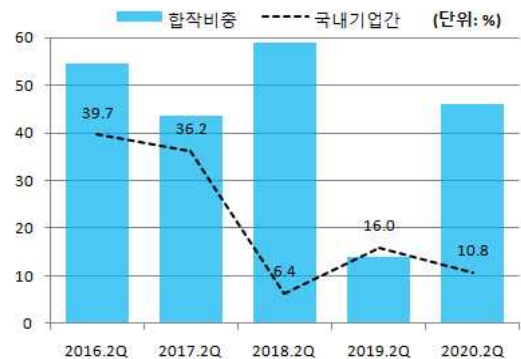


- **(특징)** 2020년 상반기 중동지역 수주규모는 2019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시아지역도 전년 동기 수주액을 넘어서면서 회복추세
- 특히 도급형 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중동지역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증가(대형화)했으나 일부국가*에 집중
- * 사우디 아람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프로젝트(18.5억불), 알제리 SONATRACH Hassi Messaoud 정유 프로젝트(16.6억불),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BP12 공사 (10.6억불)
- 우리기업들은 중동지역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협력(합작)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는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상반기 중동지역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20.6%로 예년 수준*이나 아시아 및 신흥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약 45%안팎)으로 발주처 관리 및 개도국(중국, 인도 등) 대비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 * 중동지역 지명수의 비중: 2018.2Q 24.4% → 2019.2Q 19.6% → 2020.2Q 20.6%

3. 공종별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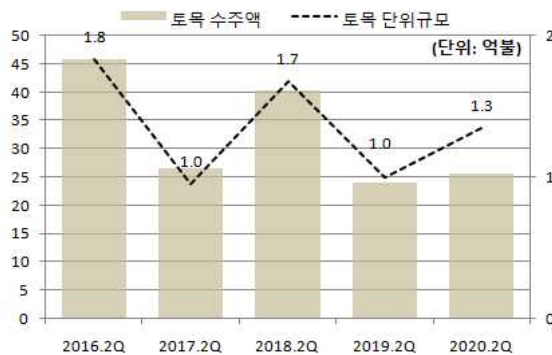
- (플랜트) 2020년 상반기 플랜트부문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회복 추세로 국내외 기업간 협력진출도 다시 증가 추세

- 상반기 수주액은 약 9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배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2.0억불→3.5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2Q 약 14%에서 2020.2Q 약 46%로 급격한 증가추세(하지만 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은 16%→10.8%로 소폭 감소세)
- 지난 5년간 상반기 플랜트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상반기 플랜트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토목) 2020년 상반기 토목 수주 규모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형화 및 외국 기업과 협력비중 급증 추세

- 상반기 수주액은 25.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1.0억불→1.3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2Q 15.5%에서 2020.2Q 약 71%로 급증(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1.9%→0.3%로 급감)
- 지난 5년간 상반기 토목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상반기 토목부문 합작비중 추이 -



- (건축) 2020년 상반기 건축 수주규모는 2018~2019년 수준으로, 대형화되고 있지만 단독진출 추세
 - 상반기 수주액은 3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p 증가했으며 특히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2Q 6.9%에서 2020.2Q 6.6%로 소폭 감소(국내기업간 합작 비중도 6.8%→1.3%로 급감)

- 지난 5년간 상반기 건축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상반기 건축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2020년 상반기 플랜트부문 수주가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인 대형화 추세로 합작비중도 증가세
 - 특히 플랜트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증가(대형화)했으나 석유&가스 부문에 집중
 - * 석유&가스부문 비중: 2018.2Q 40.0% → 2019.2Q 25.6% → 2020.2Q 33.9%
 - 우리기업들은 플랜트부문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협력(합작)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며 토목부문에서는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상반기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전반적인 감소세로 특히 토목부문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7.7%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p나 감소해 발주처 관리 및 기획·제안(PPP) 프로젝트 피력 필요
 - * 토목부문 지명수의 비중: 2018.2Q 38.9% → 2019.2Q 45.4% → 2020.2Q 7.7%

IV.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수주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5%p 증가했지만 기존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3개월→6개월 이상)***를 비롯한 **해외건설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확대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며 향후 코로나19 이후 해외건설현장 집중근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처리 필요
 - **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증빙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쿠웨이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약 10개국 수준(입국 금지 및 제한국가는 약 170개국)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유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제안형 PPP 프로젝트의 신속한 발굴** 및 ODA 증액 필요
 - *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아시아지역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파이 역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 대외부채 및 정부 부채 리스크가 적은 국가(현재 IMF에 자금지원 신청 국가는 약 90개국)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및 인프라 협력센터 원격 외교
- 최근 유가 폭락에 따라 **중동지역** 발주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기에 대비한 선제적 발주처 관리*** 및 **하이브리드·그린 프로젝트**** 진출이 요구됨
 - *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비대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IT기업과 연계한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체계** 마련 및 정부 지원 필요
 - ** **국내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기에 대비한 태양·풍력+담수,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석유·가스 → 태양광, 풍력, 수소, 핵융합) 사우디 Aramco 등 유수 발주처에 적극적 제안 필요
- 최근 경쟁심화 및 입국제한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시공의 현지화 유도*를 통한 해외건설의 **Untact 패턴****으로 진화 필요
 - * 금융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자재 조달기업 및 현지 시공기업 DB 구축과 토건뿐만 아니라 플랜트 모듈설계 및 제작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 ** Ex) FEED+EPC → 기획·설계·금융&조달·엔지니어링+현지기업 시공 및 원격 관리
→ 기획·설계·금융&조달+현지 엔지니어링·시공 및 원격 관리